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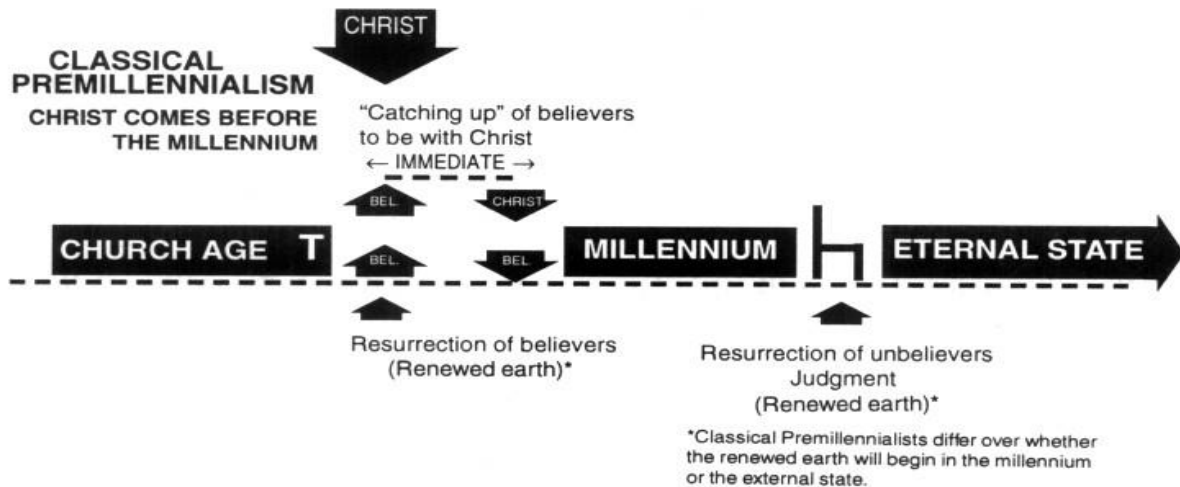
## 천년왕국에 대하여

### I. 서론

#### 1. 기본적 천년 왕국설의 입장들

##### 1) 역사적 전천년주의(Historic Premillennialism) Why is this view **historic**?

- 성도들은 대 환난을 통과한 후 공중으로 휴거하여 그리스도를 만나 바로 이 땅으로 내려와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서 천년 동안 (혹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왕 노릇 할 것이다. 교회가 대 환난을 통과하는 이유는 비록 대 환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신자들에게 임할 것이나 신자들을 그 진노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신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이 핍박을 면제해 주지 않고 그 가운데서 교회를 보존하여 주실 것이다. 천년 왕국 동안 사탄의 활동은 완전히 금지 될 것이며 천년 왕국의 마지막 때에는 사탄이 잠시 놓여 최후의 반란을 꾀하고 심판 받을 것이다. 이 최후의 심판 때에 불신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후에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
- **대표자들:** Papias, Irenaeus, Justin Martyr, Tertullian, John Gill, Charles Spurgeon, George Ladd, Carl F. Henry, John Piper, Albert Mohler, Grant R. Osborne (Commentary on Revelation,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Craig L. Blomberg (NT scholar); D. A. Carson (NT scholar); Millard J. Erickson; Wayne Grudem... 한국의 박형룡박사.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전통적으로 트리니티 신학교는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가르침). 과거에는 개혁주의 신학교인 Covenant Theological Seminary(St. Louis)의 많은 교수들이 이 견해를 지지했다. 현재 남침례교 신학교 교수들의 주류 역시 역사적 전천년설이다. 참고 <http://www.bpnews.net/31963/end-times-scholars-differ-on-what-bible-says-about-sub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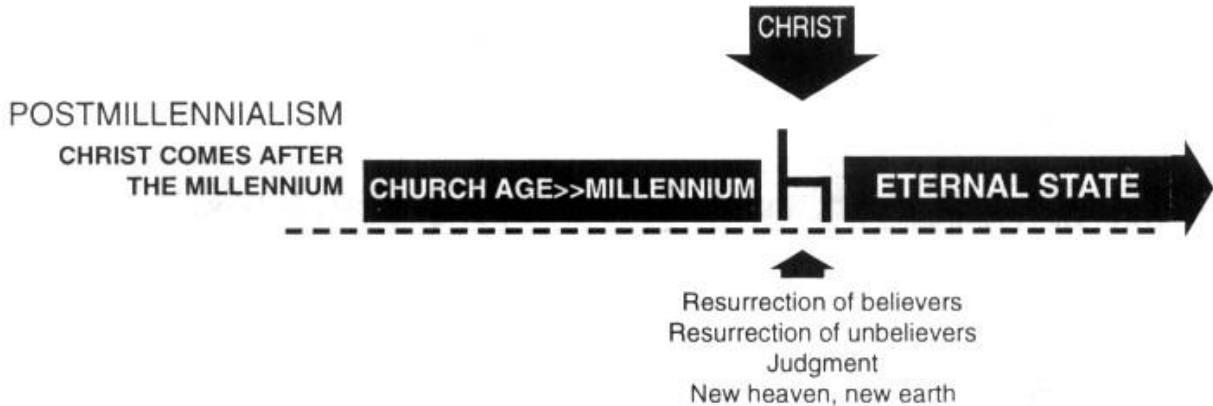


##### 2) 후천년주의(Postmillennialism)

- 복음 전파로 전 세상이 기독교화가 되면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복음 전파가 세속 정부와 시스템, 문화를 기독교로 변화시킬 것으로 믿음.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 시대→지상의 유토피아 건설 → 재림→마지막 심판→영원한 상태로 들어감. 콘스탄틴 황제를 로마 제국을 이 땅에 임한 천국으로 황제를 기독교의 다윗을 본 유세비우스 이후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기독교화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가지기 시작했다. 완전한 기독교 국가가 형성될 것 같은 분위기에 유행함. 그러나 두 번에 걸친 세계 대전으로 인해 전 세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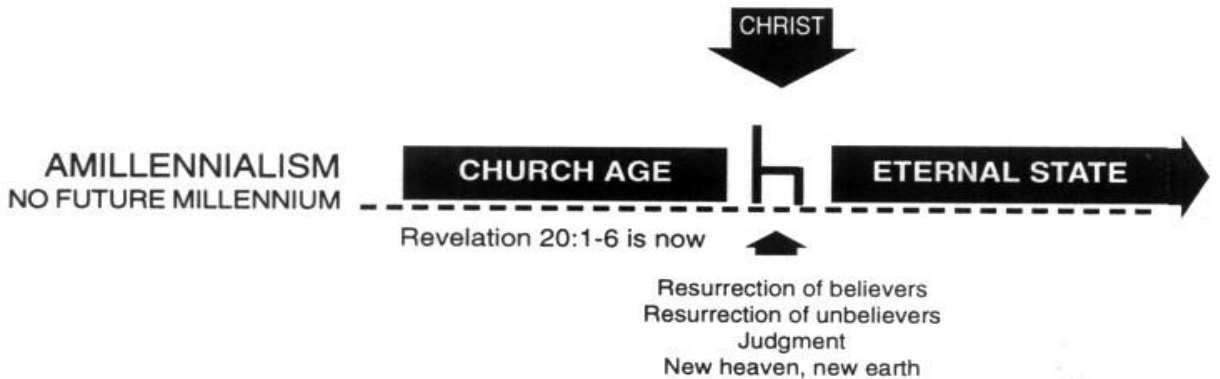
기독교화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으로 바뀔. 그러나 최근에 신사도 운동이나 일부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곱 산 정복 운동이 후천년주의 사상에 속한다.

- 대표자들은 유세비우스, 신성 로마 제국의 신학자들, 청교도 지도자들, 근대 선교 운동(윌리엄 캐리)과 부흥시대 (조나단 에드워즈) 선교 시대가 시작되던 때에 유행했던 신학. "선교를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앞당기자"라는 구호는 전형적인 후천년주의 구호이다. 옛 시대의 미국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서는 Lorraine Boettner 가 대표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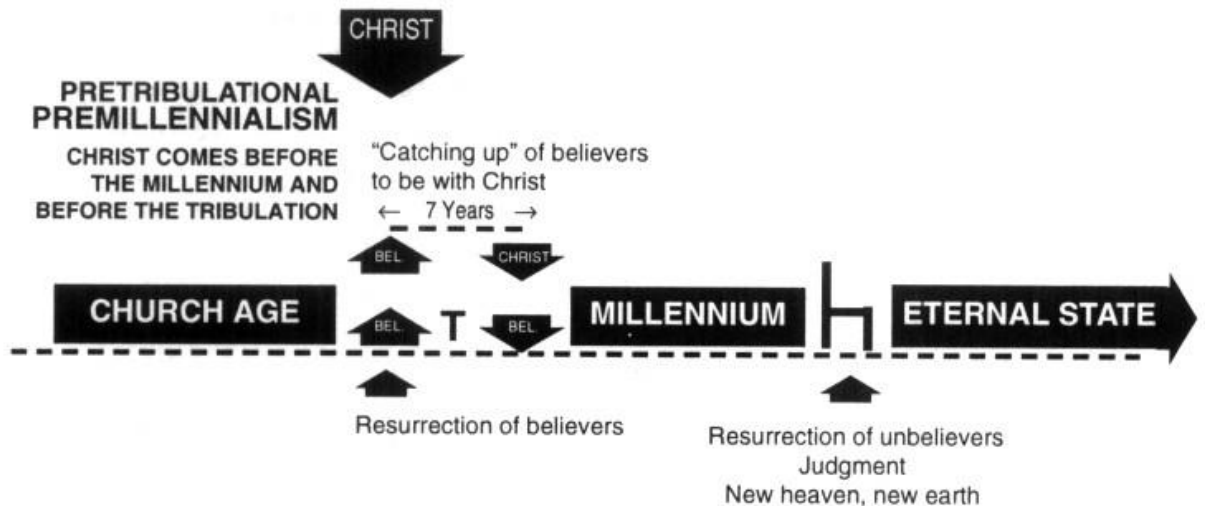
**3) 무천년주의 (Amillennialism).**

-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왕 노릇 하는 그런 지상 왕국은 없다.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시대→재림→마지막 심판→영원한 나라 순서로 이루어진다. 계시록 20:2-7 에 있는 장면은 예수님의 지상 통치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리고 신자 안에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통치를 말한다. 계시록 20:3 에 나오는 사탄의 무저갱 감금은 미래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지상 사역 속에서 마귀를 멸하셨고 묶어 놓으신 사건을 의미한다 (마 12:29). 계시록 20:4 에 있는 첫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중생)이고 두번째 부활은 육체적 부활이다.
- 구약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은 모두 신약 교회에 성취되었으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종말에 발생할 유대인들의 회심을 제외하면 민족적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남아있지 않다.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비전들이 동일한 사건에 대한 여러 다른 측면의 예언이라고 이해함. 계시록 19:17-20 과 20:1-6 는 연속적인 사건이 아님. 20:1-6 은 12:7-12 과 19:11-16 에 대한 반복일 뿐이다.
- 대표자들은 어거스틴, 칼빈과 대부분의 개혁주의 신학자들 (Anthony Hoekema, R. C. Sproul, Michael Horton...). 남침례교단은 1930 년대부터 1990 년대까지 많은 무천년주의 신학자들(James Leo Garrett...)이 있었다.



## 4)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Dispensational Premillennialism)

- 1830년대 영국 플리머스 형제단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현재 미국과 한국의 근본주의 운동 가운데서 발견된다.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예수님의 지상 천년 왕국을 믿지만 교회가 대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7년 대환란 이전이나 중간에 휴거하여 환란이 끝날 때 까지 공중에서 머문다. 대 환란전에 교회가 휴거되어야 하는 이유는 대 환란은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대한 의로운 분노를 집행하는 때이기 때문이다. 대 환란이 끝나면 그제서야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이 땅으로 내려와 지상 천년 왕국을 연다.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달리 세대주의는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이 성전과 절기를 회복하여 제사장 나라로서 교회와는 다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세대주의는 크게 고전적(Classical), 개역된(Revised), 과정주의(Progressive) 세대주의로 나뉘며 현재 미국의 신학교 교수들 중에 세대주의자가 있다면 모두 과정주의 세대주의로 이해하면 된다. 과정주의 세대주의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다른 두 하나님의 백성들로 보지 않고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하며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준 많은 예언들이 영적으로 교회에게도 이루어졌다고 본다. 또한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분의 통치는 지상 천년왕국에서 더욱 강화될 것이다.
- 대표자들: John Nelson Darby, John Walvoord, Charles Ryrie, J. D. Pentecost, and the Revised Scofield Reference Bible. 남침례교단에서는 Craig Blasing, Paige Patterson 가 대표적이며 설교자로서는 Chuck Swindoll, Church Smith, John MacArthur 등이다. Dallas Theological Seminary, Talbot Theological Seminary, Master's College (John MacArthur), Grace Theological Seminary 가 세대주의 신학교들이다.



## 5) 조동선의 입장 - 역사적 전천년주의

- 요한 계시록의 많은 부분들이 연대기적인 연속성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기록된 표명상의 문자적 의미대로 해석될 수 없다. 계시록에는 유사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다 (예, 계 12:7-17; 계 20:1-10).
- 그러나 이런 계시록의 특징이 동일한 내용의 다른 버전의 비전일 뿐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유사한 비전들의 제시는 하나의 큰 그림의 초기 (inception)과 완성(completion)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Craig S. Keener,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Revelation*, 464). 분리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동일한 것도 아닌 비전들이 하나의 그림(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점진적 부분들을 제시해 나가고 있다.

## 2. 천년 왕국설에 대한 접근법

- 1) 천년 왕국설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연구를 회피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무책임한 태도이다. 천년 왕국에 대한 이해는 성경 전체에 대한 해석학 기술과 요한 계시록이 특별히 많이 인용하고 있는 구약의 예언서들(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과 마태복음, 로마서와 기타 다른 신약 저작들에 대한 이해와 맞물려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 2) 반면 모든 기독교 신앙이 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바른 해석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성경적이지 않은 극단적 태도이다. 기독교 신학에서 어떤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그것이 거의 유일하게 절대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3) 서로 다른 견해들이 동등하게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어떤 견해는 다른 견해들 보다 더 성경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약의 예언들 중 많은 부분들이 신약에서 실제로 성취될 때에서야 비로서 분명하게 이해 되었듯, 천년 왕국에 대한 완전하고 분명한 이해도 아마 그 사건이 실제로 발생해야 비로서 이해가 되어질 것이다.
- 4) 그러므로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해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해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잠 27:17) 상대방의 질문과 도전에 대해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성경이 정말 그렇게 가르쳤는지 다시 살펴보는 것이 경건한 태도일 것이다.
- 5) 천년 왕국에 대한 성경의 정확한 가르침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신학적 바름(theological correctness) 자체가 아니다. 신학적 바름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세상에 대해 바른 관점을 가짐으로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배교하지 않고 신앙의 순전함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세상과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은 심판을 받고 멸망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에 처해지겠지만 결국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멸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운 자들이었음을 입증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와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핍박에 대해 담대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승리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천년 왕국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바르게 연구하게 된다면 그 결과로 이런 확신들을 가진 경건한 신앙인들이 될 것이다.

## 3.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 [세대주의와 무천년주의에서 제기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을 포함]

- 1) 구약 이스라엘에 주신 예언들의 기독교적 해석의 필요성
  - 마 2:15 은 어린 예수님이 헤롯이 죽기까지 이집트에서 지낸 사실을 구약 예언의 성취로 주장하면서 호 11:1("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를 인용하였다. 호세야는 예수님의 이집트 거주를 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 자기 아들이라 부르시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했다. 호세야는 예언이 아니라 과거에 발생한 역사적 사실을 확증한 것이다. 그렇다면 마태가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임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진 그 어떤 존재 (천사들, 이스라엘, 다윗) 보다 더 위대하시며 참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공유하심. 요 5:26). 이스라엘과 다윗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참된 이스라엘로 참된 다윗으로 오셨다. 마태는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가 지니고 있는 기독교적 성취를 보게 된 것이다.
  - 구약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은 그것들이 주어진 당대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야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예를들면, 사 53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을 신약에서는 예수님께 적용하였다(마 8:17-베드로 장모의 열병 치유; 행 8:30-35 -이디오피아의 내시). 그런데 이런 기독교적 해석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야 가능했다. 많은 유대인들이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야로 보지 못한 것은 사 53의 고난받는 종은 다윗의 아들이나 메시야로

불리우지 않는다. 그는 이스라엘을 대신해 고난을 받을 개인이면서 동시에 고난 받는 이스라엘(사 49:3; 45:3)로 불리웠다. 또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에는(사 11:3-4) 이 땅을 철장으로 다스릴 왕에 대한 예언이 있다. 따라서 왕이시면서 고난받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분의 구속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구약을 읽었던 독자들이 그리스도를 고난 받는 종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 구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주어졌을 때 반드시 그 예언의 일차적인 청중들과 선지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구약은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 베드로는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사건을 경험한 교회를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해 준다(벧전 1:12).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해 주어진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선지자들이나 그들의 청중에 의해서 다 이해되어진 것은 아니었다. 구약은 신약에 의해서 성취되어지고 그 성취에 대한 해석이 주어지길 기다리고 있었다.
- 구약 이스라엘에게 주어지 예언들이 기독교론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예언들이 교회론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가)** 신약은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임을 가르치고 있다 (전통적 세대주의는 부인했지만 점진적 세대주의(20 세기 후반 ~ 21 세기 주류 세대주의는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바울은 롬 9 장에서 교회가 유대인들 중 믿는 자들과 이방인들 중에서 믿는 자들이 모인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라고 표현한다 (롬 9:23-24). 그런데 바울은 미래 이스라엘의 회심을 약속한 호 2:23, 1:10 과 사 10:22 을 인용하여 교회의 멤버십을 설명하고 있다 (롬 9:25-29).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요(갈 3:7),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신칭의의 믿음을 가진 모든 교인들의 아버지이다 (롬 4:16). 진정한 이스라엘, 할레파 (빌 3:3), 유대인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롬 2:28-29).

**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과 세울 새 언약(렘 31:33-34)이 신약 교회에서 성취되었다(히 8). 세대주의에서는 천년 왕국때에 예루살렘에 문자적 새로운 성전과 구약의 절기가 그대로 성취될 것이고 다만 구약적 기능이 아닌 이미 완성된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에 대한 기념적인 의미 (주의 만찬이 과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듯)로 재현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히 8:13 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이후에는 구약의 옛 언약에 속한 의식들을 낡아지게 하고 없애셨다고 말한다.

## 2) 동시에 신약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문자적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가르친다

(무천년주의가 부인하고 있는 것).

-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다는 것을 확증한 후, 바울은 롬 11 장에서 올리브 나무의 예시를 통해 구약의 역사적 관점에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준다.
- 롬 11:26 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 59:20 과 27:9 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그들”이라고 말하여 교회와 구분하고 있다. 이 그들은 육체적인 유대인들로 현재는 불신자이지만 종말에는 회심을 할 사람들이다.
- 신약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예언들의 상당 부분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또 미래에 성취될 것으로 본다는 사실이 예외없이 모든 구약의 예언이 교회에서 성취된다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는 교회의 탄생으로 취소된 적이 없다 (롬 11:29).
- 천년왕국에서 문자적, 역사적 이스라엘의 역할에 대해 성경은 더 이상의 자세한 언급을 주고 있지 않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될 수도 있다.
- 종말에 회심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의 원래 올리브 나무에 붙여있게 될 것이다.

**II. 계 20:1-6 이 이미 주어진 다른 예언들과 동일한 내용인가? [무천년주의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 포함]**

**1. 계 19:19-20. 종말의 최후에 대한 예언? Not Yet**

- 1) 거의 모든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19:19-21 절이 그리스도의 공개적인 재림과 그분이 자신을 대항했던 적들(짐승, 거짓 선지자, 땅의 임금들, 그들의 군대) 멸하시는 사건에 대한 예언임을 인정한다.
- 2) 계 19:20 은 신성모독의 거짓 삼위일체를 이루던 짐승(적 그리스도, 성자에 대한 거짓 모방)과 그의 선지자(성령에 대한 거짓 모방)이 산 채로 우황 불 (지옥 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는다.
  - 19:20-21 의 심판이 사탄을 포함한 최후 심판인가? – 무천년주의는 “그렇다”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거짓 삼위일체의 정점에 있는 즉 성부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탄의 운명에 대해선 어떤 언급도 나오지 않는다. 그럼 사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바로 그 사탄의 최후에 대한 예언은 계 20 장에 기록되어 있다.
  - 따라서 무천년자들의 주장과 달리 계 19:19-21 은 새 하늘과 새 땅 이전의 마지막 장면에 대한 예언이 아니다.

**2. 계 19:19-20 과 20:1-6 의 관계 –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발생한 사건이다 [무천년주의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

- 1) 무천년주의는 계 20:1-6 을 계 19:11-16 절까지의 회상으로 본다. 영화에서 어떤 줄거리가 이어져 가다가 주인공이 갑자기 과거의 사건을 다시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듯, 성령님이 요한에게 최후 심판 이후 다시 최후 심판 이전의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 준다고 주장한다.
- 2) 계 12:1 이 그런 회상의 역할을 하는 예언의 한 장면이다. 그렇다고 모든 계시록의 사건들을 그런 식으로 볼 수는 없다. 계 20:1-6 은 19:19-21 에 순서적으로 이어지는 사건으로 이해해야 더 자연스럽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앞서 언급했듯, 거짓 삼위일체의 가장 중요한 머리인 사탄에 대한 처분이 19 장에는 없다.
  - 적그리스도와 그의 거짓 선지자는 산 채로 불 못에 던져지지만 사탄은 무저갱에 갇혔다(20:2-3ab) 잠시 풀려나(20:3c) 최후로 불 못에 던져지는(20:10)다른 심판의 과정을 겪는다.
  - 사탄이 불 못에 던져질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이미 그 불 못에서 형벌을 받고 있는 중이다(20:10).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그 나머지 거짓 삼위일체의 멤버들이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는 다르게 다루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3. 계 20:1-6 와 계 12:7-12 의 관계 -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다른 비전이 아님**

- 1) 무천년주의 주장
  - 무천년주의는 사탄이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져 입구가 봉인된 것이 사탄의 활동의 완전한 봉쇄가 아니라 세상을 속이는 사탄의 영향력이 심각하게 약화된 것으로 주장한다.
  - 계 12:7-12 에서 사탄이 땅으로 쫓겨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두 본문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들을 간과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아래의 비교를 참조하라.
  - 계 12:7-12 과 계 20:2-3 에 나타난 사탄의 쫓겨남 비교.

계 12	하늘에서 <u>땅으로</u> 쫓겨남(12:9, 12)	쫓겨난 뒤 <u>잠시</u> 활동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12:12)	쫓겨난 후 땅의 거주민을 기만함 (12:9,12). 땅에 쫓겨난 사탄은 자신을 따르는 더러운 천사들과 거짓 선지자와 음녀를 통해 땅 위에 있는 민족들을 성공적으로 기만하였다(계 13:14; 18:23; 19:20)	땅에 화가 미침(12:12)
------	-------------------------------	--	---	-----------------

계 20	땅에서 무저갱으로 쫓겨남(20:1, 3)	천년동안 감금됨(20:3)	사탄이 다시는 (“any longer”) 땅의 거주민을 유혹하지 못함(20:3)	천년 동안 땅에 평화와 안식이 있음
------	------------------------------	----------------	--	---------------------

2) 무천년주의 해석에 대한 답변

- 계 12:7-12 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인한 사탄의 패배를 언급하고 있으며 계 20:2-3 은 전쟁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결과로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 계 12:7-12 은 계 20:2-3 을 예견하는 역할을 한다. 전자는 이미 시작된 사탄에 대한 심판과 그의 무기력에 대한 그림이고 후자는 그렇게 심판 받고 기세가 꺾인 사탄의 최후 심판과 처벌이 완성된 그림이다.

**4. 계 20:1-6 과 계 19:11-16 의 관계 –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다른 비전이 아님**

1) 무천년주의에서는 위의 두 본문이 동일한 시대와 사건, 즉 교회 시대의 복음 전파의 능력에 대한 서로 다른 비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2) 무천년주의의 해석에 대한 답변

- 계시록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능력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계 12:7-12).
- 그러나 그와 같은 사실이 계시록의 중요한 요소인 마지막 때에 대한 실재성을 부인하는 식으로 강조되어서는 안된다. 마 25 의 열 처녀 비유는 교회 시대를 포함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재림 때에 드러날 참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다. 마찬가지로 요한은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서문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계 1:7)라고 예언하였다. 계시록이라는 예언서가 1 세기 교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시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19:11-16 교회를 통한 복음의 확장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자신의 천사들과 함께 온 세상에 임하시는 영광스런 주님에 대한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한 비전이다.
- 계 19:6-10 [교회와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역시 현 교회 시대에 대한 것이 아니다. 물론 바울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제시하였다 (고후 11:2; 엡 5:25-33).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가질 실제적인 혼인식은 종말의 때에 일어날 소망으로 제시하고 있다 (엡 5:27). 예수님 역시 혼인 잔치를 종말에 있을 자신의 재림 사건에 비유하셨다(마 22:1-14; 25:1-13). 계시록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혼인식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의 완성인 재림의 때와 연결되어 있다.
- 계 19 장은 계시록에서 유일하게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육체적 재림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곳이다. 만일 19 장이 구원의 내면적 측면과 현 교회 시대의 복음 전파 사역으로 영해가 되면(spiritualized) 사실상 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육체적이며 전 세계적인 재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결여하게 된다. George Ladd 의 “Historic Premillennialism,” in *The Meaning of the Millennium: Four Views*, 34 참조.

**III. 역사적 전천년주의 (Historic Premillennialism)의 관점에서 본 계 20:1-6 [세대주의와 무천년주의에서 제기한 답변을 포함]**

**1. 교회는 대 환난을 통과한다** (“Great tribulation” [ESV]-마 24:21; or “Distress unequaled” [NIV] – 막 13:19)

- 1) 세대주의는 교회(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가 대 환난 이전에 휴거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대 환난은 불신자들과 사탄의 무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기 때문이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였기에 또 다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 없다.

2) 성경은 교회가 언제나 환난 가운데 있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요 16:33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행 14:22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 [“through many tribulations we **must** enter the kingdom of God”-ESV]; 롬 5:3; 살전 3:3; 요한 1 서 2:18).

- 대 환난과 교회사에 나타난 환난의 차이는 종류(kind)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degree)의 차이임.
- 물론 눅 21:36 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종말의 때에 환난을 피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러나 그때 사용된 단어 “피하다”의 헬라어 “εκφεύγω” (to escape) “~ 한 가운데서 피하다” (“to escape out of the midst of”)를 의미한다. 즉 대 환난 자체를 면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운데를 통과하면서 보존된다는 뜻이다. 계 7:14 참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 “These are the ones coming out of the great tribulation”[ESV]. “나오는”(coming out of)이라는 표현은 이미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환난을 겪은 자들이 그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다. 사람의 핍박은 피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으로 부터는 보호를 받는다.
- 계 3:10 에서 예수님은 교회에게 “너를 지켜 시험을 때를 면하게 하리니”(I will keep you from the hour of trial that is coming on the whole world)라고 하셨다. 이때 사용된 “지키다”라는 헬라어 동사(τηρέω)는 예수님이 이미 요 17:15 에서 성부 하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지는 마시고 보존하여 달라고 기도하실 때 사용하신 동일한 단어이다. 그러므로 계 3:10 의 의미는 전 세계적으로 다가 올 교회에 대한 핍박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보존되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다.
- 물론 대 환난과 관련되어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불신자에게 임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그 진노를 같은 식으로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들을 더욱 신실하고 정결하게 만들 것이다.

## 2. 휴거(rapture-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함”)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개적이며 가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 1) 휴거 된 후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한 후 바로 이 땅으로 내려온다.
  - 논의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성도의 휴거에 대한 성경 구절은 살전 4:17 이다.
  - 살전 4:17 의 “영접”이라는 헬라어 명사(아판테시스)는 동네를 방문하는 왕이나 군대 사령관을 영접하기 위해 동네 밖으로 나와 그 명예로운 방문객을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다시 동네로 모셔들이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이 단어는 마 25:6 에서 신랑을 맞이하여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과 행 18:15-16 에서 로마의 형제들이 로마로 압송당하는 바울을 맞이하러 나와 그와 함께 로마로 들어올 때에도 사용되었다.
- 2) 그렇다면 세대주의의 주장과 달리 성도들이 휴거되어 공중에서 신랑이시자 왕이시며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곳에서 7 년 동안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으로 내려와 이곳에서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 3. 사탄의 결박

- 1) 계 20:2-3 에 나타나는 사탄에 대한 완전한 절대적인 봉인 (사탄이 결박됨, 무저갱에 잠겨짐, 봉인됨, 더 이상 만국을 미혹하지 못함)은 계 12:12-13 에 나타나는 사탄의 기만 행위와 분노에 차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과는 도저히 일치하지 않는다 – Keener, *Revelation*, 464.
- 2) 제자들의 선교와 축사 사역으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예수님이 말하셨다. 그러나 사탄은 그 후에도 제자들(베드로의 경우)과 세상을 미혹하여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었다. 교회시대에 강한 자인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결박되었으나 활동이 멈춘 것은 아니다.

- 3) 바울은 사탄이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도 여전히 불신자들 사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엡 2:2-현재시제)고 경고했다. 베드로는 사탄이 교회 시대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해야 했다(벧전 5:8).
- 4) 기독교 역사 2000 년 동안 어느 시대가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았던 때가 있는가? 어느 세속 정부가 어느 세속의 시대가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았던 때가 있는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 20:2-3 에 있는 사탄의 완전한 감금을 교회 시대와 동일시 하는 것은 주석학적(exegetical – 본문이 말하는 의도를 해석해 내는 과정)으로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인정 받을 수 없다.
- 5) “이점이 [사탄의 완전한 감금, 사탄이 더 이상 인류를 유혹할 수 없게 됨]이 내가 결코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 수 없게끔 만드는 가장 큰 주석상의 문제이다. 19 장 마지막에 있는 사건들과 20 장의 시작 부분은 모두 순차적으로 일어난다. 이 본문에 어떤 과거의 사건에 대한 반복적 회상도 없다. “천 년”은 – 그것이 문자적이든 상징적으로 상당히 긴 기간이든 –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발생해야만 하는 사건에 속한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전천년주의자로 남아있게 강권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 Craig L. Blomberg, “Why I am a Historical Premillennialist,” in *CTR* 11/1 (2013), 81.

#### 4.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에 대한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진다.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완성되어짐 (마 5:17 Christ came to “fulfill” the law and the Prophets).

- 1) 신실한 이스라엘인들(시 37:11)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들도(마 5:4) 땅을 차지할 것이다.
- 2)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실제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이 땅에 대한 약속이 가나안이나 유대인에게만 한정적이지 않다고 본다. 땅에 대한 약속은 이스라엘에서 전 세계로, 믿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까지로 확대된다고 본다.

#### 5. 첫번째 부활 (다시 살아남)- “came to life” (헬, *ezesan*) 20:4c

- 1) 부활의 대상자 –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킨 신실한 자들.
  -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 이들은 불신자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배교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키다 죽은 자들이다.
  - 그렇다면 오직 순교한 사람들만 천년 왕국의 통치자들이 되는 것인가? 아니다. 계 20: 순교자들은 모든 성도들의 신실함을 대표하는 그룹으로 이해된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한다는 가르침은 신약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고전 6:2; 계 2:26-27; 3:12, 21; 5:10). 신약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가르쳐지고 있다(단 7:22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이 천년 왕국의 통치에 참여하지만 계 20 은 순교자들을 그들의 대표자들로 언급한 것 뿐이다).
- 2) 부활의 성격 – 영적 거듭남인가? 아니면 육체적 부활인가? 육체적 부활이다.
  - 무천년에서는 다시 살아난 (“came to life” - ) 자들을 불신자였다가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살아난 자 (영적 부활)로 보거나 그리스도인으로 죽어 영혼이 중간상태에서 천국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오늘날 무천년주의 학자들 중에 천년 왕국을 중간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비록 성경이 *ezesan* 이나 이와 비슷한 표현들을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들이 있지만 (횃수로는 육체의 부활에 대한 언급이 더 많다), 중간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ezesan* 이라는 단어나 ‘살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본문은 이미 중간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생명을 얻는 부활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은 중생이나 중간상태가 아닌 육체의 부활이라고 보아야 한다.

-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무천년주의 신약 학자인 Beale 은 헬라어 *esezan* 이 물리적 부활에 대해 사용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Revelation*, 1002). 동일한 형태의 동사가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사용되었다(계 2:8. "죽었다가 살아나신 [ἐζήσαν]이가").

### 3) 부활의 횟수

- 무천년주의자들은 단 한번의 부활을 주장한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동시에 부활의 몸을 입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 근거 구절로는 모든 인류의 부활이 동시에 언급된 성경 구절들이다 (단 12:2; 요 5:29).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시간 차이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많은 예언들이 실제 성취에서는 시간 차가 있음에도 구약에서는 동시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초림 (창 3:15 부터 말 4:2 까지)과 재림 사이에 있는 간격과 차이에 대하여 (속 12:10) 분명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데 이는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초림이 이루어져야 재림에 대한 더 분명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 사 61:1-2 에서 예수님은 1 절과 2 상반부("여호와와 은혜의 해")가 자신의 청중들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2 절 하반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는 읽지 않으시고 성경을 덮으셨다. 율 2:28-32 도 마찬가지이다. 요엘 선지자는 성령님이 모든 믿는자에게 임하시는 것이라고 했지만 성령의 강림은 오순절에 이루어졌지만(율 2:28-29) 율 2:30-31 은 재림의 때를 언급한 것이다. 마 24:29 에서 주님 스스로 자신의 재림의 때에 해가 어두워질 것을 예언함 (계 6:12-17 참조). 베드로가 행 2:16-21 에서 율 2:28-32 이 이루어졌다고 한 것은 종말의 사건이 모두 발생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강림으로 그 종말의 때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간격과 차이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를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은 천년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구분에서도 신약 만큼 분명하고 충분한 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것도 의미한다.
- 요 5:29 이 신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을 동시에 언급했다고 해서 시간적으로 반드시 동시에 발생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마 24:15-28 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많은 예언들을 한번에 동시에 언급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언급된 그것들이 모두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있다.
- 그러나 고전 15:22-24 은 부활의 사건이 시간 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발생할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15:23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Then, 헬- ἐπειτα, '그 후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24 그 후에는 (Then. 헬-εἶτα, '그 후에')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다 부활하지만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현실화 되는 것은 동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 부활 "이후에" [어느 시점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헬라어 부사 *epeita* and *eita* 는 언제나 시간의 흐름상 순서를 의미한다. 만일 바울이 성도의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을 말하려고 했다면 또 다른 헬라어 부사 *τότε* (동시에, at the same time)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대신 시간 차를 나타내는 *eita* 를 선택했다.
- 바울이 말했듯,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에는 이미 2000 년의 차이가 있다. 그럼 우리의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출현과 1000 년이든 아주 긴 기간이든 차이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 아니다.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복종 시키고 다스릴 것이며 그 후에 그 왕국을 아버지께 돌릴 것이다. 그러면 최후의 적인 사망이 그 때 처리될 것이다 (고전 15:26; 계 20:13. 이 두 구절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죽음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야 사라질 것을 보여준다).

## 6. 보편적으로 제시되는 역사적 천년년주의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한 응답

- 1) 천국에서 중간기 상태로 행복과 평화를 누리던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 왜 아직도 죄악이 남아 있는 (비록 사탄은 감금되었지만 여전히 불신자가 살고 있으며 죽음이 존재하는) 이 땅으로 내려와야 하는가?
- 육체 없이 거룩한 영혼만 존재하는 중간기 상태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믿는 것은 성경적 근거가 없다. 성경의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연합된 존재로서 육체의 부활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리 중간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의 영혼이 평화와 기쁨을 누리다 해도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육체 없는 지복을, 육체 없는 영원한 천국은 성경이 아닌 영지주의에 가까운 생각이다. 그러므로 부활한 육체로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하는 것이 영혼만으로 하늘의 천국에 남아 있는 것 보다 훨씬 복된 것이다.
- 2) 어떻게 부활하여 영광스럽게 된 육체를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존재할 수 있는가?
- 이미 역사에는 이와 같은 경우가 존재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아직 부활하지 않은 제자들과 40 일간 이 땅에서 함께 교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은 앞으로 부활할 그리스도인들의 완전한 샘플로서 부활의 첫 열매라 불리셨다(고전 15:20). 재림 이전에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었다면 왜 재림 이후에 불가능하다고 믿어야 하는가?
  - 무천년주의 신학의 대표자인 Beale 은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지 못한 제자들과 40 일간 교제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지상 천년 왕국을 거절한다. Beale 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아직 승천을 통해 영광스럽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상에서 함께 사실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부활 뿐만 아니라 영광스런 몸을 가졌기 때문에 지상에서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과 살 수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Beale 의 부활의 몸과 영광스런 몸의 구분은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인간 육체성이 승천을 통해 변화되었다고 암시조차 하고 있지 않다. 부활한 몸과 영광스런 몸이 다른 것이 아니다. 부활하기 때문에 육체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다 (“육된 [죄의 영향 아래에서 불명예스런]) 육체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it is raised[resurrected] in glory -1 Cor 15:43. ESV]. 예수님의 육체는 부활하신 상태 그대로 다시 돌아오신다(행 1:11).
- 3) 천년왕국은 성경 전체에서 계 20 에만 유일하게 한번 언급된다. 어떻게 한 부분에서 신학을 형성할 수 있는가?
- 기독교 신학을 성경의 직접적인 용어에서만 형성할 수 있다면 삼위일체, 성육신,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는 대부분의 중요하고 성경적인 신학들이 사라져야만 할 것이다. 성경의 교리는 그 내용이 충분한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이 우리 구원의 핵심 교리이지만 사 53 을 제외하고는 구약에서 직접적으로 찾아 볼 수 없는 내용이다.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받고 죽으셔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을 때는 사 53 이외에도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고난 받는 하나님의 종의 주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께서 자신의 왕국에서 철장으로 이 땅의 왕들과 민족들을 다스릴 것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다(시 2:8-9; 사 11:6-9; 숙 9:10). 영적인 통치가 아니며 하늘의 통치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 땅에 속한 대적자들에 대한 우주적인 차원의 승리자로서 다스리는 시기가 교회 시대에 언제 이루어졌는가? 무천년주의는 이런 시기를 부인하고 교회의 영적 통치 시대에서 바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의 전이를 주장한다. 후천년주의는 은 역사적 천천년주의와 마찬가지로 이 땅 위에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후천년주의는 전 세계가 기독교계(전 국가의 시스템이 기독교화 되는 것)화 된 후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계시록 19 장과 20 장의 순서를 지키지 않는다. 또한 역사에서 언제 어느 나라가 점점 더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었던가? 중세 카톨릭 시대에도 유럽은 불의와 죄악이 가득했다. 신약 또한 전 세계의 모든 자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는 시기가 있다고 약속한다(빌 2:10. 바울이 사용한 “무릎 꿇게” 되는 행위는

압도된 복종의 행위로 자발적인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 아니다. 바울은 보편 구원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보편적으로 이 세상에서 인정될 것임을 말한 것이다).

- 구약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준하지만 완벽하지는 않는 시기에 대한 가르침들을 주고 있다.

4) 사 65 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만 있지 천년 왕국에 대한 가르침은 없다.

- 사 65:17-25 과 계 21:1-5 의 텍스트 비교

가) 우선 요한은 계시록에서 많은 이사야서의 텍스트를 사용하고 있지만 특정한 구절을 직접 인용하기

보다는 단어들을 선별적으로 사용하면서 이사야 뿐만 아니라 구약의 다른 예언서들의 텍스트를 동시에 사용한다.

나) 어휘상 공통점: 사 65:17-20 절과 계 21:1-5 사이에는 "새 하늘과 새 땅" 과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만이 직접 관련이 있고 간접적으로는 "이전 것이"(사 65:17)라는 표현이 "처음"(계 21:1)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 그러나 계 21:2a 는 사 52:1 에서 계 21:2c 는 사 61,10b 에서 계 21:3 은 겔 37:26-27 에서, 계 21:4ab 는 사 25:8a 에서, 계 21:5 b 는 사 43:19a 에서 더 직접적인 텍스트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 내용의 비교

가) 사 65:19-25 은 신 28 에서 발견되는 언약에 불순종 한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저주로부터의 회복이다 (레 26:1-13; 신 28:1-14). 구약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신실하기만 했다면 사 65:19-25 은 성취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겔 26:24-36 참조). 예를 들어, 신 28:30 은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라고 말한다. 사 65:22 절은 신 28:30 의 회복이다. 레 26:22 은 "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효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라고 말한다. 사 65:25 은 레 26:22 의 회복이다.

나) 사 65:17-25 는 계 21-22 장의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 이후 가나안 땅 유대인들의 회복된 모습이다, 특별히 지상의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다. 계 21-22 에서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지만 사 65:19-25 의 예루살렘은 기존의 것으로 새로운 자질이 부여된 것이다.

다) 계 21-22 에는 죽음, 죄, 저주, 결혼, 아기의 출생, 아이에서 노인으로의 나이들어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 65:20 은 자연스럽게 못한 조기 사망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계 21:4 이 말하듯 사망 자체의 부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계 21:4 은 모든 형태의 죽음이 없을 것임을 말하고 있다.

라) 이런 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사 42:6). 결론적으로 사 65:17-25 는 계 21-22 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한 예(example)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마) 구약에서는 고난 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와 승리자로서의 메시아가 분명히 구분되지 않았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종말에 있을 모든 사람들과의 부활도 구분되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따라서 구약에서 메시아의 교회시대 통치와 천년왕국 시대의 통치와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통치 사이에 명확한 구분을 기대할 수 없다.

- 사 65 의 Typology (예표론)의 기능

가) 구약의 많은 예언들은 예표로서 사용된 것들이 많다. 그리고 그 예표들의 실제들이 신약에서 성취되었다.

나) 예표와 실제로 성취된 것의 차이는 후자가 전자보다 언제나 규모에 있어 더 크며, 자질면에 있어서 더 위대하며, 범위에 있어 더 보편성을 가진다.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구약의 동물 희생과

신약의 그리스도의 희생; 구약의 대제사장 직분과 신약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분; 기원전 539 년 바벨론 국가의 멸망과 계시록에 나오는 영적 바벨론의 멸망...

- 다) 사 65 는 계 21-22 의 예표로 이해할 때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계시록 21 은 사 65:17-25 을 배경으로 하면서 삶의 변화된 자질들을 그대로 받아 들였다: 기쁨, 안전, 평화, 눈물, 고통, 슬픔이 사라짐. 그러나 계 21:4 은 어떤 종류의 죽음도 거절하고 있다. 사 65:20 에 있는 죄인과 저주는 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계 21:27; 22:3). 어린아이의 죽음은 결혼을 전제로 한다. 천국에서는 결혼 생활이 존재하지 않는다.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들처럼 결혼의 관계 없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마 22:29-32). 사 65 에서 예루살렘은 이 땅에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던 유대인들의 다윗 성이다. 그러나 계 21 의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또한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나아온다. 사 65 에는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지 않지만 계 22 은 이점을 약속해 주고 있다.
- 라) D. A. Carson <https://thirdmill.org/seminary/lesson.asp/vs/ESC/ln/3/df/y> “젊은 이가 100 세에 죽을 수 있으며 누구도 정말 일찍 죽지 않을 시기에 대해 말하고 있는 사 65 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부활의 존재에 아직 미치지 못하는 위대한 축복의 시기인것 처럼 보인다. 비록 나의 몇몇 무천년주의 친구들이 100 세에 죽은 젊은이에 대한 언급이 [영원한 불멸에 대해 설명하는] 상징적 어법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이사야서는 다른 곳에서 아주 분명하게 영원한 불멸에 대해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영원한 불멸에 대해 이사야의 청중들이 인식을 못하는 것도 아니며 애매하게 100 세의 죽음을 불멸에 대한 상징적 화법으로 이해할 필요도 없다] 여전히 사 65 은 최종적인 정점은 아니지만 정점처럼 들린다. 이런 여섯 혹은 그 정도의 정말 어색하고 불편한 구절들이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에게는 정말 어색하고 불편하다. 비록 역사적 천년년주의가 개념적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 이전에 그것에 미치지지는 못하지만 매우 유사한 천년 왕국이 있어야 한다는 개념] 정리가 되지 않는 것 같다 하더라도 내 관점에서는 이렇게 어색하고 불편한 구절들을 주석학적으로 가장 잘 다루고 있는 견해이다.”

## 7. 왜 천년왕국이 필요한가?

- 1) 성경이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모든 민족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할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2:8-9; 사 11:6-9; 속 9:10). 신약성경에서,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왕이다 (히 1:3; 2:7-8; 10:12-13). 이것은 이미 시 110:1 에 예언된 것이다.
- 2)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주권자로서의 통치에 참여하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이다 (딤후 2:11-13; 계 3:21).
  - 그리스도의 통치는 이미 영적으로 시작되었다 (빌 2:5-10). 그는 현재 하늘 보좌에 좌정해 계시는데 보좌에 좌정했다는 것은 왕/주로서 통치하신다는 뜻이다.
  - 신약에서 구원받는 믿음의 고백은 그리스도가 the Lord 라는 것이다 (마 16:16; 롬 10:9; 고전 12:3). 나의 주, 우리 교회의 주 정도가 아니라 만유의 주이시다 (엡 1:21-22).
  - 그리스도인들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종말의 약속으로 부여 받았다 (계 2:26-27; 3:21; 12:5). 지상 천년 왕국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이전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정복하시고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왕국을 성부 하나님께 돌리시기 위한 사역의 현장이다(고전 15:24-26).

## 8. 천년왕국 신학이 주는 실제적 교훈들

- 1) 그리스도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만의 주님이 아니다. 그분은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정치,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서 주님이시며 그분의 주님되심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신약 성경은 복음이 개인적이며 내면적 측면에 머물지 않고 사회를 변혁하고 삶의 행동과 제도에 반영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완전하게 드러나야만 가능한 것이다. 주님의 주재권은 마귀와 악한 영들과 세상의 군왕들에게도 집행된다. 교회여 담대하라!

- 2) 세상과 마귀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교회를 절대 파멸시킬 수 없다. 비록 교회가 핍박을 받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될 것이며 마귀와 그를 추종했던 세상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위협과 고난 중에 신앙을 타협하거나 배교할 유혹에 직면할 때 참된 신자는 참된 교회는 계시록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와 그분과 함께 시행할 천년왕국에서의 심판과 다스림에 대한 소망으로 신앙의 신실함을 유지해야 한다 (참된 신자가 배교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님).
- 3) 성도가 세상에서 신앙의 순전함을 유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성도의 경건성이 (기도, 전도, 선교, 봉사...)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때를 계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순종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앞당겨지는 것이 아니라 해도 우리는 명령 받은 것에 순종함으로 실천해야 한다. 운동을 한다고 죽지 않는 것은 아니다. 생명의 마지막 호흡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우리는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봉사로 하나님 나라고 도래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봉사에 신실할 수록 우리는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에 더 합당한 종이 될 것이다.
- 4)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에 대한 사랑.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천년왕국에서의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종말에 유대인들 중 참으로 남은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 회심하게 될 것이고 그들도 교회에 편입되어야 할 사람들이다(롬 9-11). 그렇다면 유대 민족의 계속적 존재는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중요한 것이다. 유럽과 전 세계에 만연한 반 유대주의, 이스라엘 민족의 파괴를 도모하는 세력들을 직면하고 있는 오늘날 이스라엘의 정치적 결정에는 동의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들이 당하는 반 유대주의에 대해선 반대해야 한다. 그들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하는 것 역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다.
- 5) 기독교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진정한 기독교 국가는 오직 천년 왕국에서나 가능하다. 심지어 천년 왕국에서도 모든 시민들이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지상에서의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어떤 정치적 선동이나 철학에도 속아서는 안된다. 인간은 그런 사회를 구성할 수 없다. 염세주의자가 되라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라. 그러나 전도와 선교가 이 사회를 유토피아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오직 흰 말을 타고 오셔서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는 왕 중의 왕, 주군들 중의 진정한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그런 사회를 가져올 것이다. 정치에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책임감에 따라 행동하되 정당과 정치인에게 참되고 궁극적인 소망을 두지 말라.

## 지옥(Hell): 죄인들을 위한 영원한 형벌의 장소와 상태

### 1.서론

#### 1) 용어

- 바깥 어두운 곳 (마 8:12; 22:11-13)
- 불의 못 ("The Lake of Fire": 계 20:10, 14, 15; 21: 8).
- 영원한 불 (마 25:41, 46).

- 2) 이 지옥 불이 어떤 불인지에 대한 3 가지 견해가 있다
-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불
  - 은유적 표현으로 알 수 없는 어떤 고통을 주는 형벌
  - 우리가 알고 있는 불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이 땅에 있는 불처럼 태우고 고통을 주는 불.

## 2. 장소로서의 지옥

- 1)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장소를 지칭하는 부사)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막 9:47-48)”
- 2)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마 25:30).
- 3) 죄인들로 영원한 형벌을 위한 부활의 몸(단순히 영원토록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천국이 실제 장소라면 지옥도 실제 장소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실제 장소에 대해선 성경이 알려주지 않는다.

## 3. 지옥의 성격에 대한 3 가지 견해

- 1) 만인 구원설- 비 성경적 견해: 모든 사람이 지옥을 통과해서 정결하게 된후 천국에 들어간다. 정통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 당함.
- 대표자들: 오리겐, 니사의 그레고리, 카톨릭 신학자 라너, 바르트 등이 주장.
  - 하나님의 전능성과 사랑의 개념을 합쳐서 전능하신 사랑의 능력을 주장. 어떤 죄악의 저항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이길 수 없고 다 굴복하여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됨.
  - 지옥은 일종의 booth camp 로서 잘못을 회개하여 두 번째 기회를 가지게 됨.
- 2) 존재 소멸설 (annihilationism)- 비성경적 견해; 지옥이나 지옥의 형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옥 형벌의 결과(존재 소멸)가 영원함.
- 여호와 증인, 안식교, 적지 않은 복음주의 계열의 신학자들 (특히 John Stott 와 같은 현대 성공회 신학자들,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신약학 교수였던 Earl Ellis)
  - 영생은 오직 믿는이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따라서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 영생은 시간의 끝없는 연속으로서의 시간의 무한한 양(quantity)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영원한 질(quality)를 말한다.
  - 형벌이 아니라 파멸[존재의 소멸]이 하나님의 심판의 일차적인 결과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
  - 멸망에 사용된 헬라어들은 문자 그대로 생명의 완전한 멸절을 의미한다 (apollymi, apōleia, olethros).
  - 영원한 불이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불이나 벌레들이 가져오는 문자적 결과인 멸절의 영원한 결과는 받아 들인다. 지옥의 형벌은 있지만 그 형벌을 받는 순간 아니면 곧 죄인이라는 존재자체가 그 형벌의 막대함으로 소멸되어 존재 소멸이라는 심판의 결과가 영원토록 남게 된다.
  - 존재 소멸론자들이 주장하는 영원한 형벌에 대한 다양한 반론들: “영원한 지옥은 영원한 악의 존재를 의미한다. 그럼 하나님 말고도 영원토록 존재하는 동등한 존재가 있단 말인가?”; “어찌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토록 형벌을 내릴 수 있는가?”; “영원한 형벌은 잠시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것에 비해 너무 과하게 벌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다.”
- 3) 영원한 형벌 (eternal punishment): 지옥이라는 장소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음. 구원의 기회 없음- 성경적 견해.
- 대표자들: 터툴리안, 어거스틴, 칼빈, 루터, 스피전, 조나단 에드워즈, 에릭슨, 그루뎀, J. I. Packer...

-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평행으로 두셨다 (마 25:46). “영원한”이라는 동일한 형용사를 천국과 지옥을 묘사하는 한 구절에 동시에 사용하셨다. 만일 천국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곳, 또는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한시적인 곳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지옥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지, 시간이 지나면 고통이 없어진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 파멸에 사용된 세가지 헬라어들은 반드시 존재의 사멸을 말하지는 않는다. Apollymi 은 마 9:17 절에서 찢어진 포도주 자루를 녹 15:9 절에서는 잃어버린 동전을 의미한다. 역시 Apoleia 는 마 26:8 과 막 14:4 절에서 허비된 기름을 말하는데 사용되었다. 결론적으로 파멸에 사용된 헬라어는 존재의 사멸이 아니라 존재의 역기능을 말하는데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지옥의 멸망에 완전한 예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죄인들의 육체가 멸망한 것이지 그들의 영혼이 소멸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 영원한 지옥은 지옥에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죄인들의 자유로운 결정 [슬피 울며 이를 값]에 대한 하나님의 존중이 될 수 있다.
- 죄의 공의로운 심판은 죄를 지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죄를 지은 죄질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공의도 또한 영원한 것이다. 따라서 그분의 의와 거룩 그리고 사랑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을 거부한 것은 영원한 저주를 자초한 것이며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것이다.
- 영원한 지옥은 하나님이 악에 대해 완전히 승리하셨음을 의미한다. 지옥이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것과 다르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이 시간을 초월하여 스스로 영원하신 것이지만 지옥은 계속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지옥은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며 사탄은 형벌을 받게 되는 곳이다. 따라서 악이 하나님과 동등한 힘을 갖게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만일 현재 존재하고 있는 악이 하나님의 주권을 전혀 침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악을 처벌하기 위해 남겨 두신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전혀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다

#### 4. 지옥에 형벌의 차이가 있는가? 당연히 있다.

##### 1) 성경적 근거

- 죄질에 차이가 있음:
  - 가) 요 19:11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he who delivered me over to you has the greater sin.”);
  - 나) 마 11:21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새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 처벌에 차이가 있음:
  - 가) 출 21:28-32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려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려 쳐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 나) 마 10:1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으나 거절한 성] 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다) 눅 12:47-48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 2) 알지 못하여 죄를 범한 경우, 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 처벌 또한 중죄에 비해 가볍다. 그러나 심판에서 면죄되는 죄는 없다.
  -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제 2의 구원의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듣고 거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큰 심판과 처벌을 받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멸망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의 죄에 대해서만 심판과 처벌을 받는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 날에 복음을 거절한 도시 보다 심판을 견디기가 쉽다고 하셨지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심판에서 면죄가 되거나 두번째 기회를 받거나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복음을 듣고 거절하는 죄는 아주 심각한 중죄에 해당한다. 예수님이 직접 전하든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에게서 듣는 결과는 동일하다.
  - 많이 받은 자 즉 많은 은혜와 체험과 말씀 연구를 한 자들에게 더 엄격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약 3:1. 선생들에게는 더 큰 심판[greater strictness]이 기다리고 있다).
- 3) 지옥에서 자기 행위대로 형벌을 받기 때문에 모든 죄인이 동일한 정도의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님.
  -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 불에 던져짐 (계 20:12-13).
  -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를 집행하신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아브라함의 롯을 위한 간구. 창 18:25).

## 천국: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장소와 상태

### 1. 천국의 위치

- 1) 사도들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이 올라간 그 방식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말씀을 들었다(행 1:11).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의 공간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어떤 장소임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부활한 육체성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토록 살아가야 할 천국인 새 하늘과 새 땅도 시공간에 속한 곳이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진리가 천국을 어떤 장소로 생각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 가운데 자신의 초월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임재하 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 발견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성전이 하나님의 영성을 훼손한 것이 아니다.
- 2) 그러나 그 장소의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인간이 스스로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 3) 그리스도인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말이 틀린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그가 죽는 그 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약 성경에서 낙원은 천국에 대한 동의어이다(고후 12:2, 4; 계 2:7, 22:2). 또한 이 장소는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육체를 지니신 주님과 천사들과 함께 머무는 곳이다.
- 4) 그러나 중간기 상태에서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가는 것이 성경의 결말이 아니다. 요한은 새 예루살렘 (천국)이 땅으로 내려와 새 하늘과 새 땅에 형성되는 것을 목격한다 (계 21-22).

- 5)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은 현재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다.

## 2. 새 하늘과 새 땅의 형성

- 1) 사도 베드로가 말한 대로 현재 하늘과 땅은 불로 심판 받아 없어 질 것이다 (벧후 3:1-13). 그러나 불로 임하는 심판이 이 세상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노아 시대 물로 심판 받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없어지지 않았다. 다만 죄인들과 그들의 문화가 심판으로 사라졌을 뿐이다.
- 2) 부활의 몸은 (전천년주의자들은 이 부활의 몸이 천년 왕국의 시작에 주어진다) 우리로 하여금 천국(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고 살기에 합당하도록 해 준다.
- 3) 그런데 이 부활의 몸은 현재 육체와는 상당한 질적 차이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질병과 죄에 노출되지 않을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활체는 현재 우리의 육체를 변화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묘사되는 영원한 천국은 현재의 세상이 변화된 것이지 하나님이 이 현재의 세상을 없애고 우리를 우주 넘어 하늘 보좌로 옮겨가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 우리의 구원이 새 창조로 불리는 것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시고 아름다웠던 창조를 포기하거나 사탄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비록 죄로 물들었지만 예수님의 구속사건은 타락한 창조 세계를 새롭게 회복하고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만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소멸해 버리신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큰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이다.
  - 벧후 3:13 과 계 21:1 절에 나오는 "새로운"이라는 형용사가 헬라어로는 시간적으로 또는 종류에서 새롭다는 의미의 "네오스" (neos)가 아니라 본성의 질적인 측면에서 새로움을 뜻하는 카이노스 (kainos)를 뜻한다. 다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에서 유로의 창조가 아니다.
- 4) 새 하늘과 새 땅은 현재 이 세대에 속한 질서와 죄악들이 사라진 부활한 성도들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데 적합한 참된 에덴이 될 것이다. 원래 죄 짓기 이전의 에덴이 단순히 회복된 것이 아니다. 아담의 순종으로 완성되어야만 했던 에덴의 완성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 3.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 1) 안식 (rest): 성경에서 안식을 아무것도 않고 있는 백일몽 상태로 묘사한 적이 없다. 안식은 언제나 적극적인 교제와 섬김을 전제로 하고 있다.
  -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었어 어떤 위협도 없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 바다가 없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물이 없을 것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이것은 신학적 표현이다. 구약에서 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등장할 때가 많다. 따라서 천국에서는 그 어떤 위협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 하나님의 절대 통치 아래에서 평화를 누림. 또한 왕상 5:3-4 절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안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세력들이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서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천국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절대 통치 아래에서 살게 됨으로 안식을 누림.
- 2) 봉사 (work): 원래 봉사 혹은 일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였다. 그러나 죄로 인해 일이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고통의 통로가 되고 심지어 사람의 우상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원래의 기능이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다.
  - 새 예루살렘이 도시로 불린다는 것은 천국은 매우 문화활동이 활발할 것임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받은 성도들이 최고조의 상태에서 음악, 미술, 건축과 같은 문화 활동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영원한 찬양과 경배. 천사들과 구원 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찬양과 경배는 지루하거나 단순한 반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결코 그 신비가 다함이 없는 영원한 속성들을 찬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간의 사랑이 더 깊어 지고 넓어 질 것이다.
- 새 창조물을 청지기로서 관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임.

### 3)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

- 신약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학습을 통한 간접 지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통해 이루어 지는 직접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 ( 마 5: 8; 고전 13:12; 요한 1 서 3: 2).
- 하나님의 신적인 본성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체험과 배움은 끝이 없을 것이며 날마다 새로울 것이다.

### 4) 그리스도와의 끝없는 사랑

- 새 하늘과 새 땅은 신부가 신랑[어린 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고 말한다 (계 21:2, 9).
-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결혼 생활을 명예롭게 여겨야 하는 (히 13:4) 궁극적 이유는 우리의 결혼 생활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줄 수 있는 기쁨을 주기 때문이 아니다 (어느 정도 미리 맛 보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궁극적인 이유는 천국 생활이 그리스도와 결혼 생활이기 때문에 그것의 예표인 우리의 결혼 생활이 거룩하고 명예로와야 하는 것이다.
- 지상의 어떤 연인들이나 부부들의 사랑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경험하게 될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과는 비교될 수 없다. 순전함에 있어서, 열정에 있어서, 친근함에 있어서, 매력에 있어서, 머리됨과 순종에 있어서....

## 4.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서로를 알아 볼 수 있을까?

- 1) 천국의 예시였던 변화상산에서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 보았다 (마 17:4).
- 2) 눅 16 장이 비록 부활한 성도들의 모습은 아니라 하더라도 죽음 이후 성도가 과거에 이 땅에서 알고 있던 사람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된다.
- 3)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로 너희와 함께 마실 때 가지라고 말씀하심으로 (마 26:29), 주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그분을 알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다.
- 4) 천국에서 결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을 채워야 하는 창조의 명령이 이루어 질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자녀와 부부로 살면서 발전 시켰던 서로간의 친밀함이 천국에서는 냉랭한 관계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관계를 새롭게 맺을지는 모르나 천국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 관계를 가장 넘치게 복 주시는 곳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현재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친구로 관계를 맺고 있는 형제, 자매와 이 땅에서 보다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고 그 사실로 만족해야 한다.

## 5.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상급의 차이가 있는가?

- 1) 영원한 상급의 차이에 대한 반대 의견들.
  -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마 20:1-16). 일한 시간에 관계 없이 모두 한 데나리온 씩 받았다.
  - 성경에서 면류관은(고전 9:25; 살전 2:19; 딤후 4:8; 약 1:12; 벰전 5:4) 모두 영생을 언급한다. 영생은 일의 결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다.

## 2) 상급 반대론에 대한 응답

- 포도원 농부 비유의 핵심이 천국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절대적으로 동일한 상급을 받을 것을 말하는 것인가?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권이 핵심이다. 마태가 천국에서의 상급의 차이를 부정하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추론할 만한 여지가 없다.
- 고전 9:25 는 영생을 말하지 않는다. 그 문맥에서 바울은 상급을 말한다. 바울이 두려워 한 것은 영생의 상실이라 그의 사역의 효율성이 상실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것이었다. 빌 4:1 과 살전 2:19 은 면류관이 자신이 섬긴 다른 그리스도인들로 묘사된다.
-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사역이 하나님에 의해 종말에 평가될 것을 말한다(고전 3:5-15). 그 삶에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면 상급을 잃어버리는 해를 당하게 된다 (고전 3:15. He will suffer the loss, though he himself will be saved, but only as through fire).
- 면류관이 영생을 언급한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천국에서 성도들에게 상급의 차이가 없다는 결론으로 당연히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기 때문에 어떤 차이도 없어야 된다는 신학적인 전제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 눅 19 장은 분명 상급의 차이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열 므나 - 열 고을 다스림; 다섯 므나 = 다섯 고을 다스림).
- 천국에서 우리는 천사 처럼 (천사로 변하는 것이 아님) 될 것이다 (마 22:30). 천사들은 권위와 영광의 차이가 있다. 천사장이 있으며 (미가엘은 천사장이다 유 1:9). 가브리엘 천사는 미가엘 천사의 도움을 받았다 (단 10:13). 천국에서 천사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듯 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차이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될 필요가 없다.
- 차이가 난다고 해도 질투할 죄성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의 영광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상대방의 상급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 3) 영원한 상급의 차이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해석.

- John Bunyan, *Of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102. 이 땅에서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누리게 될 것이다. 그들은 순종의 행위들을 통해 자신들의 마음과 영혼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확장되어있기 때문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광의 그릇이 다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수용 범위에 따라서만 가득 찰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 주실 때 그들의 부지런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이성적, 영적 감각들의 강함에 따라서도 자신을 다르게 분여하신다(히 5:13-14). 많이 가진 자가 그날에 더 가지게 될 것이며 더 풍성해 질 것이다 (마 13:11-12).
- Jonathan Edwards, *The Portion of The Righteous*, December, 1740: 천국에는 기쁨과 행복의 정도가 다르다. 천국에서 성도들의 영광은 이 땅에서 그들이 보여준 거룩과 선행에 비례할 것이다. 눅 19:17 과 고후 9:6 을 보라. 바울은 별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고 말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 때도 그렇다고 한다(고전 15:41). 예수님은 제자에게 물 한컵이라도 제자의 이름으로 준 자에게는 상급이 있으며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막 9:41).. 그러나 이 말씀은 만일 이 땅에서 어떤 선행을 신앙의 힘으로 해도 영원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말씀이다. 천국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찬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누구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행복의 바다에 그릇들을 던지면 모든 그릇에 물이 찬다. 비록 더 많이 담기는 그릇과 덜 담기는 그릇이 있기는 하지만... 천국에는 질투가 없다. 각자가 자신보다 더 많은 영광을 얻은 자를 기뻐하며 그들보다 더 기뻐해 줄 것이다. 자신들의 영광이 다른 사람들의 것보다 덜 하다고 해서 자괴감에 빠지는 대신 자신들 보다 더 헌신한 자들이 더 큰 영광을 누리야 한다는 하나님의 의로 그 마음이 채워져 불만이 아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천국의 성도들은 지상의 성도들

보다 더욱 거룩하고 더욱 겸손하다. 천국에서 큰 영광을 얻은 자들은 더욱 겸손해 질 것이며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있는 질적 차이에 대해 더 크게 느낌으로서 더 낮아질 것이다. 천국에선 이렇듯 상대방의 행복으로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 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 Anthony A. Hoekema, *The Bible and the Future*, 264: "누군가 음악을 공부하여 악기를 연주하는데 어떤 전문성을 획득하게 되면 음악을 즐기게 되는 그의 역량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헌신 그리고 그분의 왕국에 대한 우리의 봉사는 현재 이곳과 미래 영원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의 복락을 경험하는 우리의 역량을 증가 시킬 것이다."
- vi. Leon Morris, *Biblical Doctrine of Judgment*, 67: "이곳에서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봉사에 자기 자신을 전심을 다해 드리는 자는 성의없이 섬긴자 보다는 주님의 기쁨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안다. 천국에서는 다를 것이라는 어떤 증거도 신약 성경에서 찾을 수 없다."